1. 쇼핑

|  |  |
| --- | --- |
| A: 안녕하세요?  주인: 어서 오세요. 뭘 도와 드릴까요?  A: 이 옷은 얼마예요?  주인: 만 원이에요.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죠?  A: 제일 큰 사이즈로 주세요.  한번 입어 봐도 될까요?  주인: 그럼요. 이쪽으로 오세요.  (A씨는 옷을 갈아입은 후에)  A: 예쁘네요.  이 것으로 주세요. | A: 안녕하세요?  주인: 어서 오세요. 뭘 도와 드릴까요?  (A씨는 옷을 고르기)  A: 이 옷은 S 사이즈가 있어요?  주인: 네, 여기 있어요.  A: 한번 입어 봐도 될까요?  주인: 그럼요. 이쪽으로 오세요.  (A씨는 옷을 갈아입은 후에)  A: 이 것은 얼마예요?  주인: 만 원이에요.  A: 이 것으로 주세요. |

1. **지하철역**

(지하철역에서 A씨는 도움을 받으려고 ‘호출 버튼’을 누름)

A: 도와주세요.

(지하철역에 있는 직원이 도착)

직원: 안녕하세요. 호출 버튼을 누른 사람이죠?

A: 네, 맞습니다. 교통카드가 없는데 서울역으로 어떻게 가면 되죠?

직원: 그러면 1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하세요. 이쪽으로 오 세요.

(기계에 가까이 온 후에)

직원: 서울역으로 가죠? 여기서 2 천원을 놓으세요.

( 1회용 교통카드를 나옴)

직원: 이 카드로 쓰고 당고개행으로 가면 됩니다.

서울역에 도착해서 저기 같은 기계에 이 카드를 놓으면 잔돈을 나옵니다.

A: 감사합니다.

**b) 강남역에서**

A: 실례합니다. 동대문 종합시장에 어떻게 가면 되죠?

B: 지하철이 제일 빠르고 편리해요.

A: 몇 호선을 타야 합니까?

B: 2 호선 초록색 라인을 타세요.

동대문 역사 문화 공원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고 동대문역에서 내리면 돼요.

A: 여기서 얼마나 타야 호선을 바꿔야 되죠?

B: 17 정거잔만 더 가면 되요.

A: 동대문 종합시장이 지하철역에서 가깝나요?

B: 아주 가까워요. 바로 7번 출구 앞에 있어요.

1. **은행**

A: 안녕하세요?

직원: 안녕하세요. 어떻게 오셨어요?

A: 돈 좀 바꿔주세요.

직원: 얼마를 바꿔 드릴까요?

A: 천 달러만 바꿔 주세요. 오늘 일 달러에 얼마예요?

직원: 일 달러에 1200원이에요. 120만원이에요. 확인해 보세요.

A: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

직원: 즐거운 여행을 되십시오.

1. **택시 안에**

A: 안녕하세요. 어디로 가십니까?

B: 시청으로 가주세요.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?

A: 30분 정도 걸립니다.

다 왔습니다. 여기가 시청입니다.

B: 요금이 얼마예요?

A: 3만 2천 원입니다.

B: 여기 있어요. 4만 원예요.

A: 여기 거스름돈 8천 원 받으세요.

B: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

1. **식당**

A: 어서 오십시오. 몇 분이죠?

B: 두 명이에요.

A: 이쪽으로 앉으십시오.

메뉴 여기 있습니다.

B: 뭐가 맛있죠?

A: 비빔밥과 갈비가 맛있습니다. 외국분들은 불고기도 좋아하세요.

B: 그럼 비빔밥 하나, 불고기 하나 주세요.

너무 맵지 않게 해주세요.

A: 알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

1. **길 찾기**

A: 실례합니다. 가까운 우체국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?

B:

1. 이 길을 따라 쭉 가면 오른쪽에 있어요.
2. 이 횡단 보도를 건너서 왼쪽으로 가세요.
3. 다음 사거리에서 지하도를 건너서 조금만 더 가면 오른쪽에 있어요.
4. **취미**

A: 안녕하세요.

B: 안녕하세요. 주말 잘 보냈어요?

A: 네. 친구와 등산을 했어요.

B: 등산을 좋아하네요!

A: 네, 아주 좋아요. 공기가 맑고 건강에도 좋아요.

B씨는 이번 주말에 뭐 했어요?

B: 저는 아내와 영화를 봤어요.

A: 재미있겠네요. 무슨 영화를 봤어요?

B: 더 벙커라는 한국 영화를 봤어요. 아주 재미있었어요.

A: 영화를 자주 보세요?

B: 네, 제 취미가 영화 감상이에요.

1. **배달시킴**

A: 안녕하세요. ㅇㅇㅇ 치킨입니다.

B: 여기는 정왕동 100-1번지 101호예요. 배달 가능하나요?

A: 네, 뭘드릴까요?

B: 후라이드 하나, 양념치킨 하나 주세요. 그리고 생맥주를 2 병을 추가해요.

A: 네, 30분정도걸립니다. 괜찮습니까?

B: 괜찮아요. 얼마예요?

A: 4만2천원입니다. 카드로 결제합니까?

B: 아니요. 현금으로 결제할 게요.

A: 점심에 뭐 먹을까?

B: 집에 나가기가 싫어요, 그냥 시켜 먹어요.

A: 뭐 먹고 싶어요?

B: 저는 짜장면이에요.

A: 알았어요. (따르릉) 여보세요?

중국집이죠?

짜장면 두 그릇하고 탕수육 소자 하나 갖다 주세요.

그리고 군만두도 하나 주세요.

1. **병원**

A: 어떻게 오셨어요?

B: 열이 나고 몸살이 나요.

A: 기침이나 가래는 없어요?

B: 기침 조 나고 코가 막혀요.

A: 자, “아~ “하고 입 좀 벌려 보세요.

B: 아….

A: 옷을 좀 올려 보세요. 최근에 과로한 일이 있어요?

B: 어제 퇴근하다가 비를 맞았어요.

A: 감기 몸살이에요. 무리하지 말고 약을 먹어서 푹 쉬세요.

자, 간호사를 따라서 주사를 받으세요.

1. **계획**

A: 이번 휴가에 뭐 할거예요?

B: 저는 제주도에 여행을 하려고 해요. 비행기표도 다 예약했어요.

A: 얼마동안 갈 거예요?

B: 3박2일에 갈 거예요. 비행기표도 샀고 방도 예약했어요.

A: 가족들과 같이 갈 거예요?

B: 아니요. 친구와 같이 날 거예요.

A: 재미있겠 다녀와요.

1. **여행사**

A: 7월30일부터 8월 2일까지 제주도 여행하려고 해요.

B: 손님, 7월30일은 아침 9시와 오후 6시 출발 비행기 있습니다. 어떤 것을 원하세요?

A: 아침 출발로 해 주세요.

B: 네, 자동차 렌트는 필요하세요?

A: 네. 얼마예요?

B: 하루에 1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있습니다.

A: 좀 비싸 군요. 10만 원짜리로 해주세요.

B: 숙소는 정하셨어요?

A: 아니요. 아직 못 정했어요.

해수육장 근처 민박으로 해 주세요.

A: 안녕하세요. B씨, 어떻게 지내세요?

B: 요즘 운동을 해요. 자전거를 타고 태권도도 해요. A씨는 태권도를 할 수 있어요?

A: 아니요. 그런데 저도 태권도를 하고 싶어요.

B: 한 번 배워보세요. 아주 재미있고 건강에도 좋아요.

A: 태권도를 어디에서 배우세요?

B: 집 앞 태권도장에서 배워요.

1. **지난 주말**

A: 주말에 뭐 했어요?

B: 친구를 만났어요. 친구와 같이 밥도 먹고 쇼핑도 했어요. A씨는요?

A: 저는 집을 청소했어요. 그리고 드라마를 봤어요.

B: 무슨 드라마를 봤어요?

A: ㅇㅇㅇ를 봤어요. 그 드라마가 아주 재미있었어요.

B: 저도 그 드라마를 좋아해요.

1. **집들이**

A: B씨, 내일 저녁에 바빠요?

B: 아니요, 안 바빠요.

A: 내일 우리 집에 오세요. 집들이를 해요.

B: 정말요? 몇 시에 갈까요?

A: 저녁 7시까지 오세요.

…

A: 어서 오세요. 집 찾기가 어렵지 않았어요?

B: 아니요. 쉬웠어요. 이건 집들이 선물이에요.

A: 고마워요.

B: 집이 참 좋네요.

1. **공장**

**a)**

A: B씨, 작업장 주변 좀 정리하세요.

그렇게 공구를 아무데나 놓아두면 안 돼요.

B: 작업을 끝나고 한번에 치우면 안 돼요?

A: 아니요. 잘 못 하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.

공구는 쓰고 바로바로 치우세요.

B: 청소는 일을 다 끝내고 해도 되지요?

A: 네, 청소는 나중에 해도 돼요.

B: 알겠습니다.

**b)**

A: B, 어디 있어? 내가 사무실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이거 다 차우라고 했잖아.

B: 일하느라 바빠서 깜빡 잊어버렸어요.

A: 한 번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해야지. 몇 번을 말해야 하는 거야.

B: 제가 놀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.

다른 일 하느라 잊어버린 건데, 왜 화를 내세요?

A: 어디서 말대꾸야 .… 다음날…

A: B, 어제는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.

B: 아니요. 저도 잘 한 것이 없는데요, 뭐.

어제는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. 반장님, 죄송합니다.

A: 나도 미안하다. 앞으로 더 잘 지내보자.

1. **약속**

A: B씨, 지금 어디예요? 약속 시간이 20분 지났어요.

B: 미안해요. 지금 버스 안이에요. 길이 너무 막혀요.

A: 토오일하고 일요일은 도로가 항상 복잡해요. 그래서 주말에는 일찍 나와야 돼요.

B: 몰랐어요. 빨리 갈게요. 조금만 기다리세요.

A: 그리고 왜 전화를 안 했어요?

B: 정말 미안해요. 다음에는 늦지 않을게요.

A: 다음부터 늦으면 연락해 주세요.

네, 그럴게요.



A: 내일 바쁘세요?

B: 아니요. 내일 계획이 없어요.

A: 그러면 저랑 같이 쇼핑하러 갈까요?

B: 네, 좋아요. 어디에서 만날까요?

A: 시청 앞 어때요?

B: 괜찮아요. 그럼 여섯 시쯤 만날까요?

A: 여섯 시는 좀 빨라요. 일곱 시에 괜찮아요?

B: 네, 괜찮아요. 내일 시청 앞에서 일곱 시에 봐요.



A: B씨, 다리가 아파요?

B: 계단에 내리다가 넘어졌어요.

조금 다친 것 같은데 점점 더 아파요.

A: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.

발목이 많이 부었네요.

B: 근처에 병원이 있어요?

A: 시내에 정형외과가 있어요. 거기로 가보세요.

B: 고마워요.



왜 밥을 잘 못 먹어요?

요즘 이가 좀 아파서요. 치과에 가야겠어요.

제가 무료 진료를 지원하는 곳을 알아요.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곳이에요.

아, 다니고 있는 외국인 복지센터가 맞죠?

네, 저도 치과 지로를 하는 것을 봤어요.

그래요? 언제 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?

일요일에 하는 것 같아요.

알려줘서 고마워요.

1. **겨울**

A: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요.

B: 겨울이서 그래요. A씨의 고향도 지금 겨울이죠?

A: 네. 하지만 한국보다 더 따뜻해요.

B: 겨울에 눈도 와요?

A: 아니요. 눈이 안 와요. 저는 한국에 와서 눈을 처음 보는 거예요. 너무 예쁘고 놀랐어요.

B: 눈이 예쁘지만 눈은 내린 후에 길이 더러워요. 날씨도 더 추워서 저는 눈이 내리는 것을 안 좋아해요.



A: B씨, 밖을 보세요. 우와, 신기해요.

B: A씨는 눈을 처음 봐요?

A: 네. 우리 고향은 일 년 내내 더워요.

12월에도 최저기온이 20도 정도라서 바닷가에 가서 수영도 할 수 있어요.

B: 정말요? A씨 고향에 여행 가고 싶네요.

A: 겨울에는 비가 많이 외서 습해요. 여행을 하려면 여름에 가세요.

기온은 높지만 비가오지 않아서 여행하기가 좋아요.

1. **음식**

A: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?

B: 네, 좋아해요.

A: 한국 음식은 맵지 않아요?

B: 맵지만 맛있어요.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요.

A: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?

B: 불고기가 제일 맛있고 김치찌개도 맛있어요.

A: 한국 음식은 입맛에 맞네요.

1. **돌잡이**

A: 돌잔치에 가서 돌잡이를 봤어요.

B: 돌잡이가 뭐예요?

A: 여러 가지 물건을 앞에 놓으면 나기가 잡는 거예요.

B: 돌잡이를 왜 해요?

A: 아기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서 해요.

B: 어떻게 알 수 있어요?

A: 잡는 물건마다 의미가 있어요.

아기가 실을 잡으면 오래 살고, 연필을 잡으면 공부를 잘 할 거예요.

B: 재미있네요.



A: B씨도 이번 주말에 C씨의 아기 돌잔치에 가요?

B: 네, 저도 갈 거예요.

A: 돌잔치에 가면 뭐 해요?

B: 가족과 친구들이 아기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밥도 먹어요.

A: 그런데 아기한테 무슨 선물을 하는 게 좋아요?

B: 아기 옷이나 인형을 많이 선물해요.

저는 인형을 샀으니까 A씨는 옷을 선물하는 게 어때요?

A: 그게 좋겠네요. 고마워요.

1. **생일**

A: B씨, 생일은 언제예요?

B: 2월2일이에요.

A: 지났네요.

B: A씨느요?

A: 저는 3월 15일이어서 다음주 일요일이에요. B씨는 다음주 일요일에 안 바쁘면 우리집에 오세요.

A: 생일 파티를 하려고요? 당연히 가야죠. 몇 시에 하세요?

B: 8시에 오면 돼요.



A: B씨, 선생님이 아가 뭐라고 하셨어요? 저는 잘 못 들었어요.

B: 선생님이 숙제를 하고 내일 제출하라고 했어요.

A: 와, B씨는 한국어를 잘 하네요. 혹시 주말에 시간이 있으면 한국어를 좀 가르쳐 주세요.

B: 좋아요.

A: 그런데 B씨는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요?

B: 저는 영화 조는 것을 좋아해서 한국 영화를 보면서 공부해요. A씨도 좋아하는 것을 공부해 보세요.

1. **복날**

A: 오늘 메뉴 삼계탕이네요.

B: A씨, 오늘은 복날이에요.

A: 한국 사람들은 복날에 삼계탕을 먹어요.

B: 복날은 뭐예요?

A: 제일 더운 날이 복날이라고 해요.

B: 정말요? 날씨가 더운데 왜 뜨거운 음식을 먹어요?

A: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져서 더위를 이길 수 있어요.

B: 그래요? 요즘 저도 너무 더워서 힘이 없었는데 잘 됐네요.

1. **설날**

A: B씨, 설날에 고향에 잘 다녀왔어요?

B: 네, 오만에 가족들을 봐서 정말 좋았어요. A씨는 설에 뭐 했어요?

A: 한국 친구 집에 가서 떡국도 먹고 윷놀이도 했어요.

B: 재미있었겠어요.

A: 네, 정말 재미있었어요. 그리고 친구 부모님께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받았어요.

B: 우와, 특별한 경험을 했네요. 정말 좋았겠어요.

1. **급여**

A: B씨, 통장 확인해 봤어요? 월급이 들어왔을 텐데요.

B: 네, 그런데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. 계약서에서 본 금액이 아니더라고요.

A: 아, 그건 각종 보험과 세금 때문이에요. 계약된 임금에서 세금하고 보험료를 뺀 만큼 받거든요.

B: 아, 계약서의 임금을 모두 받는 게 아니군요.

A: 네, 급여 면세서를 보면 실수령액이라는 게 있는데, 그게 B씨가 실제로 받는 돈이에요.

B: 그렇군요.

다시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 봐야겠어요.

고마워요.



A: B씨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?

B: 저는 회사가 가까워서 걸어왔어요.

A씨는 어떻게 왔어요?

A: 오늘은 버스를 타고 왔어요.

B: 회사에서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?

A: 보통 30분 정도 걸려요.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막혀서 시간이 좀 더 걸려요.

1. **식사**

A: B씨, 한국에서는 식사할 때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돼요

B: 아, 그래요? 몰랐어요.

A: 한국에서는 식탁에 밥 그릇을 놓고 먹어야 돼요. 저도 처음에는 한국의 식사 예절을 잘 몰라서 고생했어요.

B: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. 한국의 식사 예절을 좀 가르쳐 주세요.

A: 밥에 숟가락을 꽂으면 안 돼요.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소리를 크게 내지 마세요.

1. **계절**

A: 요즘 날씨가 쌀쌀하네요.

B: 여름에 지났고 이제 완전 가을이에요. 단풍도 곧 나올 거예요.

A: 이 계절이 등산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. 공기가 깨끗하고 풍경도 아름다워요. B씨는 가을에 뭐하고 싶어요?

B: 저는 캠핑을 가고 싶어요. 친구와 같이 고기를 구우면서 노래도 해요.



A: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?

B: 저는 가을을 좋아해요. 날씨가 춥지 않고 덥지 않아서 닥 좋아요. 그리고 단풍도 너무 예뻐요.

A씨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?

A: 저는 가을도 좋아하지만 봄을 더 좋아요. 봄이 되면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.

B: 꽃가루 알레르기가 있어서 봄을 안 좋아요.

1. **가족**

A: 가족이 몇 명이세요?

B: 우리 가족은 모두 세 명이 있어요.

A: 그러면 B씨는 외아들(외동딸)이네요.

B: 네, 혼자가 있어서 좀 심심해요. A씨는 형제가 있어요?

A: 형이 하나 있고 누나가 허나 있어요. 그런데 성격이 달아서 같이 있으면 항상 싸워요.

1. **요리**

A: 뭐 하고 있어요?

B: 점심 밥을 하고 있어요. 같이 할까요?

A: 좋아요. 오늘 메뉴가 뭐예요?

B: 불고기를 만들려고요. 불고기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?

A: 아니요. 좀 알려 주세요.

B: 먼저 파, 당근, 양파 그리고 버섯을 다 썰어 주세요.

A: 네. 이 사과도 썰어요?

B: 아니요. 그 사과를 갈아서 양념을 만들어요.

A: 양념은 뭐 들어가요?

B: 간장, 매실액, 설탕, 후추가루, 참기름, 다진 마을도 들어가요.

A: 양념이 많이 들어가네요. 다 썩어서 볶을까요?

B: 바로 드셔도 되지만 20분 정도 재워 두면 국물이 생기고 간도 배어 맛있는 불고기가 돼요.

1. **여행**

A: 경북궁에 가 봤어요?

B: 네, 경북궁도 갔고 남산타워도 갔어요.

A: B씨는많이 가봤네요.

B: 제 친구는 며칠 후에 여행으로 한국에 오니까 여기저기 가보고 싶어요. 그런데 저는 많이 안 가봐서 어디에 데리고 가는지 고민중이에요.

A: 그러면 경북궁, 인사동과 명동에 가보세요.

경북궁에 한복을 빌어서 입어가면 입장권이 무료예요.

인사동에 한국 전통문화예술 인식되는 곳이고 맛집도 많아요.

그리고 친구가 선물을 사고 싶으면 명동이 추천해요.



A: B씨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되었어요?

B: 벌써 일 년이 다 되었네요.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.

A: 서울에 처음 올 때 첫인상이 어땠어요?

B: 우선 많은 아파트촌과 자동차로 가득한 도로를 보고 놀랐어요. 내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아서요.

A: 저는 서울에 아직도 남아 있는 한옥이 참 인상 깊었어요.



A: 하늘이 어두워지네요. 곧 비가 올 것 같아요.

B: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했어요?

A: 아니요. 비가 안 온다고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우산을 안 가지고 있어요.

B: 그런데 굉장히 덥다. 30도 될 것 같아요.

A: 글쎄, 오늘 축구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요.

B: 그럼, 우리 같이 수영장을 갈까요? 이런 날씨는 수영을 하고 싶어요.

A: 좋은 생각이에요. 친구에게 수영장에 가겠냐고 물어 볼게요.

A: 제가 방송에서 보니까 젊을 때부터 노후 대책을 세워야 한대요.

B: 노후 대책이요?

A: 네, 요즘은 늙어서 자식들한테 의지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. 한국은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
연금이 있어서 우리도 가입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.

B: 저는 한 10연 후쯤 빵가게를 하고 싶어요. 빵을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직접 만들어 팔면 좋을 것 같아요.

A: 그럼 좋겠네요. 방가게를 차리려면 목돈이 필요할 텐데…

B: 지금부터 적금도 붓고 돈을 열심히 모아야겠어요.

1. 금연

A: B씨 여기는 금연구역이에요.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.

B: 여기는 밖인데 담배를 피워도 돼요.

A: 버스정류장 10m 이내 흡연 시 벌금을 내야 돼요.

B: 네, 담배를 끌게요.



A: 오늘 피곤해 보이시네요. 감기 걸리신 거 맞죠?

B: 네, 어젯밤에 감기에 걸렸어요.

A: 그래요? 약 드셨어요?

B: 네. 감기약 두 알 먹었어요.

A: 지금 몸 상태가 어떠세요?

B: 머리가 엄청 아파요.

A: 그러면, 빨리 진찰받으러 가시는게 좋겠어요!

B: 네. 오후에 쉬고, 가려고요.

 A: 복권 사셨어요?

B: 네, 자동으로 만 원을 샀어요.

A: 복권에 당첨되면 뭐 하고 싶어요?

B: 복권에 당첨된다면 멋진 자동차를 사고 싶어요.

A씨는 복권을 안 사요?

A: 전에는 많이 샀는데 5 천 원이라도 못 받았어요.

그래서 더 이상 안 샀어요.



A: 아이고... 엄청 무겁네! 여보, 우리 택시를 부르자.

B: 돈 많이 들어요. 곧 도착할 거에요. 사거리에 도착해서 경찰한테 물어 볼게요.

A: 응... 경찰이 저기에 서있네. 물어봐!

B: 네, 실례지만 뭣 좀 물어봐도 돼요? 국제 시장은 여기서 가까워요?

경찰: 국제 시장요? 이 길로 쭉 가셔서, 두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세요.

500m 정도 더 가서 우회전하세요. 그리고 나서, 200m 정도 더 가시면 도착해요.

B: 그러면, 여기서 거기까지 몇 미터 정도 남았죠?

경찰: 아, 글쎄요... 아마 2km 정도.

B: 감사합니다.

A: 2km? 너무 멀다!

B: 거리 멀지 않아요. A씨 가요.

A: 하지만 이 가방 너무 무거워!

B: 내가 들고 갈게요... 오~ 엄청 무겁네요! 우리는 택시를 불러야 겠네요...



A: 보통 몇 시에 일하러 가요?

B: 아침 6시 반이요. 당신은요?

A: 저도 그래요. 오후에는 보통 몇 시에 집에 와요?

B: 4시 반이나 5시에요. 저녁때 보통 뭐해요?

A: 대개 독서나, 신문, 텔레비전을 보거나, 영어를 공부해요. 당신은요?

B: 나는 대개 신문과 텔레비전을 봐요. 좀처럼 독서는 못해요.

왜요?

A: 시간이 없어서요.



A: 어디에 가세요?

B: 다음 주는 개강이라서 컴퓨터 한 대를 사려고 가요.

A: 그래요? 저는 블루투스를 사야 되니까 같이 가요.

B: 네, 좋아요.

A: 컴퓨터가 30%나 세일을 하네요.

B: 진짜요? 이렇게 세일할 줄 알았으면 조금만 기다릴 걸 그랬어요. 지난주에 샀거든요.

A: 개강기간 곧 오니까 컴퓨터나 많이 세일을 해요.



A: 오늘은 왜 이렇게 덥지. 에어컨을 왜 안 커워요?

B: 에어컨은 고장 났어요. 저는 수리할 사람을 불었으니까 조금만 참아요.

 A: 더운데 창문을 좀 열까요?  
 B: 밖이 너무 시끄럽더라고요. 그래서 창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.